

BP, Sinopec 인수 제안 “거절”

우량 자산 매입시도에 거절의사 ... CNPC·CNOOC도 매입 추진

중국 최대의 석유기업인 Sinopec이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BP의 자산 일부를 인수하려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Sinopec의 장젠화(章建華) 부사장은 “BP의 우량 자산을 매입하려고 시도했으나 BP가 거절했으며 현재 어떤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인수하려 했던 BP의 자산과 협상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BP는 멕시코만 원유 유출에 따른 보상비용 등을 마련하려고 일부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BP는 7월20일 자사의 북미 및 이집트에 위치한 자산을 미국의 석유·가스기업인 아파치에 매각키로 합의한 바 있다.

Sinopec 외에도 CNPC와 CNOOC 등도 BP의 자산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02>